

# 온라인 공약발표·SNS 선거운동...여야 차분한 선거전

광주·전남 총선 후보 등록후 첫 주말 조용한 표심 잡기

코로나 19로 대면접촉 억제  
주민 간담회 공약 발굴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상가 돌고  
온라인 선거대책위 발대식

광주·전남지역 여·야 후보들은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맞은 첫 주말과 휴일인 28·29일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집중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후보는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섰다. 민생당 장병완 후보는 '남구 인공지능 교육특구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며 표발을 다졌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후보는 그동안 당내 경쟁자로서 함께 선거운동을 치렀던 김해경 예비후보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주당 원팀' 구성에 집중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김해경·강신기 위원장에 대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민생당 박주선 동남을 후보도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 주체화, 주민자치에 대한 정부 간섭 금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등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 양향자 광주 서구를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은 잡지 않고 TV 토론회를 준비하며 주말을 보냈다. 민생당 천정배 서구를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구 금호동 상가를 돌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의당 유종천 서구를 후보는 벚꽃 명소로 유명한 운전저수지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후보는 최근 민생당의 '이낙연 마케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당 김명진 서구갑 후보는 주민 자치활동 및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별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주동식 서구갑 후보는 광주시 현안 사업과 관련, '광주형 일자리인가, 광주형 아바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후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실천 차원에서 선거사무소에서 온라인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선거 캠프 관계자 일부만 참석했다. 민주당 이용민 광주 광산갑 후보는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민주당 후보 공동공약'을 제안했고, 민생당 김동철 광산갑 후보는 이낙연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표발을 다졌다.

또 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산업은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운명이 달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광주의 핵심사업이다'고 강조하며 정책 선거를 이끌었다.

전남 '정치 1번지' 목표에서는 민주당 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슬로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이,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발을 다졌다. 김원이 후보는 만남의 목표 사거리와 연동건널목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후보는 "새롭고 젊고 유능한 일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민주당 후보를 응원해달라"며 표심을 파고들

었다. 박지원 후보는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들었다. 윤소하 후보는 정호시장, 자유시장, 향동시장, 동부시장을 차례로 돌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진보정치를 이끌 큰 인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원내 1당 수성이냐 탈환이냐 민주 vs 통합당 '147석 목표' 격돌

정부 지원론 vs 정부 심판론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대결도 본격화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목표는 공히 '원내 1당'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제히 제시한 총선 목표는 지역구 130석, 비례대표 17석 등 147석 확보다.

민주당은 1당을 유지해야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1당을 탈환해 정부 실정에 제동을 걸고 보수 정권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당이 되기 위한 의석수 기준은 지난 총선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 123석(지역구 110+비례대표 13), 새누리당(현 통합당) 122석(지역구 105+비례대표 17),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비례대표 13), 정의당 6석(지역구 2+비례대표 4), 무소속 11석으로, 당시 민주당은 120석이 조금 넘는 의석으로 1당이 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130석 이상,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비례대표 17석 이상 등 15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범여권 정당까지 합해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한 민주당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강한 여당이 되겠다는 점을 내세워 표심을 결집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에서 무너진 '원내 과반 의석' 회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소한 지역구 130석을 가져오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 17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각오다.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보수의 기반을 다잡고 2022년 대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1당 탈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의 선거 슬로건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뀌어 산다!'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정권 심판의 기조를 동시에 담아낸 슬로건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중민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영입 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겨냥한 선명한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순천 찾은 이낙연 '쫓개기 선거구' 사과...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의과대학 설립·여순사건특별법  
전남 동남권 정책공약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4·15 총선 후보등록 마감 후 맞은 첫 주말 순천을 찾아 분구 무산과 쫓개기 선거구 확정에 대해 사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순천시 해룡면사무소 신대출장소를 방문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쫓개기 확정으로 신대지구를 비롯한 해룡면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이번에만 효과가 있는 단서가 없었다"며 "다음엔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신대와 해룡면민, 순천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거구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성공해야 한다"며 "역사가 문재인 정부에 지워준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전남도민들께서 꼭 도와주시라 믿는다"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철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서동용, 여수 갑 주철현, 여수 을 김희재 후보 등과 함께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확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석유화학 국가산단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전남 동부권 정책공약 공동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이 후

보 등록 후 첫 주말 전남 동부권을 찾은 것은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에는 여수 갑 이용주,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정인화 후보 등 무소속 현역의원들은 물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노관규 전 순천시장, 여수 을 권세도 전 총경 등 인지도 높은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과 일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이 호남을 방문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목표를 찾지 않은 것과 관련, 민생당 박지원 의원의 깊은 인연 때문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일정이 촉박해 당초 방문하기로 했던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자

리를 했던 이개호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 등의 일정에 따라 시간이 촉박했으며 조만간 호남을 다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때 목표와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는 물론 광주 유권자들에게도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을 둘러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 후 민주당 입당'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들에 대한 입당이나 복당 계획이 없다"면서 "이러한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이 전북 남원을 방문한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와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후보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